

# 독일, 폴란드에 2차대전 만행 또 사과



▲ '바르샤바 봉기' 희생자를 기리는 마스 독일 외무장관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당시 폴란드에서 저지른 나치 독일의 만행에 대해 "부끄럽다" 면서 또다시 용서를 구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독일의 하이코 마스 외무장관은 전날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열린 '바르샤바 봉기' 7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사망자를 기리고 폴란드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인과 독일의 이름으로 폴란드에서 저지른 일이 부끄럽다" 면서 "나치의 잔혹한 진압이 전쟁 이후에도 오랫동안 감춰졌다"고 강조했다.

바르샤바 봉기는 독일의 패전 기운이 짙던 1944년 8월 1일 시작됐다. 제대로 무장하지 못한 4만~5만 명 정도의 폴란드 저항군들이 독일 정규군에 맞섰다가 진압됐다. 1만5천~1만8천 명 정도의 폴란드 병

사가 전사했고, 2만5천 명의 병사들이 다쳤다.

민간인 사망자는 15만~20만 명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 5만 명은 블라지쿠에서 학살당했다. 살아남은 50만 명의 시민은 도시 밖으로 쫓겨났고 바르샤바는 철저히 파괴됐다.

이날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기념식에서 "바르샤바 봉기에 참여한 병사들은 폴란드의 미래, 자신들의 명예와 생존을 위해 싸웠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도 싸웠다"며 "병사들은 민간인을 학살하고 생존자들을 노예로 만드는 야만적인 독일 군대에 맞서 폴란드를 방어했다"고 말했다.

독일은 폴란드를 대상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해국으로서 사죄를 해왔다. 1970년 12월에는 빌리브란트 서독 총리가 바르샤바의 전쟁 희생자 위령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기도 했다.(아래 사진)



# "한국, 동맹 중 안보 비용 가장 높아"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존 하이트 미국 합동참모본부 차장 지명자는 한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해 투자 비용이 모든 동맹국들 가운데 가장 높다고 밝혔다.

지난 31일 '뉴스웍' 에이 미국의소리 방송(VOA)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미군 전체 서열 2위인 합참 차장에 지명된 하이트 전략사령관은 전날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하이트 전략사령관은 서면 답변에서 한국은 중요한 동맹국이며 미국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미국의 모든 동맹들 가운데 동맹 안보에 투자하는 비용이 GDP 대비 가장 크다고 강조했다.

하이트 전략사령관은 이어 한국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인민해방군의 미사일도 있다고 답했다. 그는 "한국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군 기지를 위협하는 인민해방군의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의 보유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미사일방어국이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지스 체계를 동원하는 등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의 방어력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이트 지명자는 지난 2017년에는 수많은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핵실험이 진행되는 와중에 북한이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할 능력이 있는지 판별할 수 없어서 전략사령부가 크게 고민했다면서 이에 비해 올해는 상황이 나아졌다고 말했다.

# '아메리칸 드림' 포기하는 중미 이민자 증가



▲ 본국 귀환을 신청한 중미 이민자들이 멕시코 시우다드후아레스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미국으로의 망명 절차가 갈수록 까다로워지면서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려던 계획을 포기하는 중미 이민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31일 '연합뉴스'가 고 멕시코 일간 엘우니베르살의 전날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지난 6월에만 멕시코 국경도시 시우다드후아레스에서 이민자 480명이 유엔 국제이주기구(IOM)을 통해 자발적으로 본국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로 돌아갔다. 대부분이 어린 자녀와 함께 온 여성들이었다. 미국 망명 절차가 기약 없이 길어지자 자녀의 건강 등을 우려해 본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이다.

망명이 어려워지면서 망명 신청 자체도 줄었다. 엘우니베르살에 따르면 지난 27일에 시우다드후아레스에 있는 이민자종합업무센터에 접수된 정치적 망명 신청은 한 건도 없었다. 이는 중미 이민자들의 미국행이 본격화한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이다. 또 지난 5월 한때 하루에 250명까지 치솟았던 망명 신청자 수는 6월 들어 하루 40명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처럼 미국 문을 두드리는 중미 이민자들의 수가 줄어든 것은 멕시코가 미국과의 합의에 따라 남북 국경의 경비를 강화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미국-멕시코 국경까지 도착해 망명을 신청한 이민자들도 첫 면접까지 최대 6개월가량을 멕시코 국경도시에서 머물러야 한다는 점도 이민자들의 미국행 단념을 부추겼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외교장관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달하는 중미 이민자들의 수가 지난 5월 대비 39.3% 줄었다고 밝혔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